

학교문법 교육에서 인지문법적 접근의 필요성 연구

김억조*

|| 차례 ||

1. 들머리
2. 복합어에 관한 논의
3. 복합어 교육의 인지문법적 접근 필요성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교문법의 복합어 교육 단원의 구성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인지문법의 연구 내용을 학교문법 교육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실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단어를 살펴보면 학교문법의 단어 형성 교육과는 거리가 먼 단어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문법 교육에 인지문법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어 단어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전통문법, 구조주의, 변형생성문법의 세 흐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확립된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는 단어에서 제외하는 절충식 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언어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어관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활용에 기초를 둔 (usage-based) 모형인 인지문법을 반영해야 한다. 인지문법은 아래에서 위로의 원리 (bottom-up)를 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단어를 ‘관습적 언어 단위들의 구조 지어진 목록(structured inventory of conventional linguistic units)’으로 본다. 이 단어관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학교문법에서 복합어를 보는 관점이 ‘합성’과 ‘파생’으로 이원화되던 것을 넘어서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까지 도입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존 학교 문법의 단어관은 구성의 관점에서 형성의 관점으로 변해 왔다. 단어 형성의 관점 또한 규칙의 관점에서 파악해 왔는데 최근 들어 국어의 단어형성을 규칙으로 설명하지 않고 유추라는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지문법적 관점이 국어 문법 교육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ukjokim@daum.net

주제어 : 단어, 단어 형성, 복합어, 학교문법, 인지문법, 합성, 파생, 도식

1. 들머리

이 연구는 학교문법의 복합어¹⁾ 단원의 구성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인지문법의 연구 내용을 국어교육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단어를 살펴보면 학교문법에서 이루어지는 단어 형성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문법 교육에 인지문법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은 최근에 보도된 기사이다.

(1)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혼밥족과 혼술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혼밥족은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술족은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혼밥, 혼술족을 위한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²⁾.

(1)에는 ‘혼밥족’과 ‘혼술족’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혼밥족’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혼술족’은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는 구에서 특정 글자를 선별하여 조합한 단어이다. 지금까지의 학교문법 교육에서 단어 형성법은 ‘합성법’이나 ‘파생법’만을 교육해 왔는데 (1)에 나타난 ‘혼밥족’과 ‘혼술족’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처럼 현실 생활에서는 학교문법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통적인 단어형성법에서 벗어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학교 문법에 나타난 복합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인지문법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1) 국어 연구에서 ‘복합어’와 ‘합성어’는 연구자에 따라 용어 사용에서 서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즉, 복합어는 ‘Complex word’의 번역어로, 합성어는 ‘Compound word’의 번역어로 사용한다.

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37485>

국어 단어에 대한 연구는 전통문법, 구조주의, 변형생성문법의 세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문법에서는 주시경(1910/1986)³⁾과 최현배(1937/1971)의 주장을 들 수 있는데 주시경은 단어 구조에 대해 ‘기똘박굽, 기똘험, 기똘박굽’으로 나누었는데 ‘기똘박굽’과 ‘기똘박굽’은 파생법에, ‘기똘험’은 합성법에 해당한다. 최현배(1937/1971)에서는 단어의 구조를 홑씨와 겹씨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문법에서의 연구에서는 단어 형성을 품사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존의 단어 구성을 분류,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시기에 체계화된 단어의 유형 분류는 오늘날까지 국어의 단어 형성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이승녕(1961), 김민수(1964), 이익섭(1965) 등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이승녕(1961)은 조어론을 독립시켜 줄기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였다. 김민수(1964)는 형태소 대신 어소(語素)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자립형과 의존형으로 어소의 체계를 세웠으며, 어근과 접사의 결합양상을 통해 단어구조를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었고, 합성어는 다시 파생어와 복합어로 구분하였다. 이익섭(1965)는 직접구성성분(IC)분석을 통하여 합성어를 IC가 모두 어간(語幹)이거나 어근(語根)인 단어라고 정의함으로써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였다.

변형생성문법의 연구로는 송철의(1977), 김광해(1982), 시정곤(1994) 등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송철의(1977)는 아로노프(Aronoff, 1976)의 이론에 근거하여 파생어 형성 규칙과 제약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광해(1982)는 신형 합성어는 기저문 없이 두 구성성분의 결합에 의해 잠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의미내용의 고착으로 내포적 의미가 생기면서 기존의 합성어가 된다고 보았다. 시정곤(1994)는 단어 형성을 문법의 어느 한 부문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부문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다루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전의 국부적이고 단편적인 구조분석 위주에서 벗어나 형성의 관점에서 단어 형성을 어휘부의 단어 형성, 통사부의 단어형성, 음운부의 단어 형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처럼 변형 생성 문법에서는 이전의 ‘단어 구조 분석’의 관점에서 벗어

3) 주시경의 『국어문법』이 1910년에 간행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1986년에 고영근·이현희 교주본을 확인하여 (1910/1986)으로 표기한다.

나 ‘단어 형성’의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단어 형성’의 관점에 인지문법적 관점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2장에서는 기존 복합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1985년 이후 발행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통해 학교문법에서의 복합어 교육 내용을 살펴본 후 복합어 교육에서 인지문법적 접근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4장에서 마무리한다.

2. 복합어에 관한 논의

2.1 단어와 복합어

단어는 그 정의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⁴⁾ a. “단어는 최소의 자립형식이다: A word is free form which does not consist entirely of (two more) lesser free form: in brief A word is a minimum free form.”(Bloomfield, 1933: 178)

b. “그 형태의 전후에 휴지가 있고, 그 형태의 중간에 휴지가 올 수 없는 문장의 일부이다.(Hockett, 1958: 167)

(2)를 통해 단어는 최소의 자립 형식으로 그 사이에 휴지가 올 수 없는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이 정의를 도입하면 국어와 같은 교착어(또는 첨가어)에 있어서는 단어의 정의에 문제가 생긴다. 조사, 어미와 같은 허사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어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국어의 단어는 남기심·고영근(2014: 187)에 따르면 그 짜임새가 단일한 단어를 단일어(單一語)라 하고 그 짜임새가 복합적인 말을 복합어(複合語, complex word)라고

4) 이광정(2003: 143)에서 재인용

부른다. 이와 같은 단어의 개념은 전통문법과 구조문법에서 중요시되었으나 초기생성문법에서는 거의 등한시되었다. 단어의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지 못하다. 이는 박진호(1994: 4-6)에서 단어 개념을 통사 원자와 음운론적 단어로 해체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체하게 된 이유는 국어의 ‘단어’가 가지는 모호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통사 원자는 문법적 단어와 어휘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로노프(Aronoff 1994: 9)에서는 그 동안 ‘단어(word)’가 ‘어떤 단어의 음성 형식(sound form of a word)’,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어휘소(lexeme)’의 개념을 아우르는 모호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단어의 음성 형식’이란 그것의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는 단순한 음의 연쇄로 음운론적 혹은 운율적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블룸필드(L. Bloomfield)가 단어를 최소 자립 형식으로 정의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법적 단어’는 자립성과는 상관없이 단어를 기능에 따라 나눈 것으로 그 기능이 문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휘소’는 대체로 전통적으로 어휘적 단어(vocabulary words)라 불리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촘스키(Chomsky)(1965: 74)의 대 어휘 부류(major lexical categories)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일컫는 것이다(최형용 1999: 246-247).

단어의 개념을 위에서처럼 구분하면 ‘복합어’는 아로노프가 말한 것 가운데 특히 ‘어휘소’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사는 단어로 인정된다고 해도 ‘문법적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복합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된다.

단어는 그 짜임새가 단일할 수도 있고 복합적일 수도 있다. 단어형성론은 전통적으로 분석을 중시하였지만 생성형태론이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는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 곧 화자의 단어 생성 능력을 찾아내는 방향의 연구를 가리킨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생산력이 없는 단어 구성소는 큰 역할을 할 수 없고 단어 형성소만이 부각된다. 그리고 단어 형성이 규칙에 의거하느냐 유추에 의거하느냐도 큰 쟁점이 되어 있다(남기삼·고영근 2014: 187-188).

- (3)⁵⁾ a. 산, 하늘, 높다, ……
 b. 산나물, 논밭, 높푸르다, ……

c. 꽃사랑, 웃음, 드높다, ……

(3a)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높다’의 경우 ‘높-’과 ‘-다’의 두 개 형태소가 결합한 것이지만 어간인 ‘높-’만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볼 수 있다. (3b)는 ‘산’과 ‘나물’, ‘논’과 ‘밭’, ‘높-’과 ‘푸르-’가 결합되어 있으니 복합적이고, (3c)는 ‘꽃-’과 ‘사랑’, ‘웃-’과 ‘-음’, ‘드-’와 ‘높-’이 결합되어 있으니 복합적이다(구분관·고영근 2008: 201).

2.2 합성과 파생

단어 형성을 파생과 합성이라는 이분법적 체계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현배(1934, 1937/1971)부터이다. 이전의 논의에서 ‘씨의 몸바꿈’ 또는 ‘詞의變化’ 등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던 것을 ‘씨의 짜힘(詞의 組成)’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익은씨(熟詞), 이은씨(連詞), 씨가지(接辭)로 나누어 논의됨으로써(최현배 1934),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송원용 2005: 66). 하지만 국어의 단어 형성 과정이 합성과 파생이라는 이분법적인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⁶⁾.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복합어는 이론적으로 ‘어근’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와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로 나뉜다. 이처럼 지금까지 형태론 내에서 파생과 합성의 구분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당연시되어 왔지만 파생과 합성의 구분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파생과 합성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표 1> 합성과 파생

	합성	파생
--	----	----

5) 고영근·구분관(2008/2009: 201) 예문 (2)

6) 이런 인식은 박진호(1994)에서 단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송원용(1998), 채현식(2003) 등에 드러나 있다.

형식적인 기준	자립형식+자립형식	자립형식+의존형식
의미적인 기준	실질의미부+실질의미부	실질의미부+문법의미부

<표 1>에서 형식적인 기준은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의존형식 + 의존형식’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며 의미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접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표 1>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어기와 접사의 구분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⁷⁾

2.3. 복합어와 관련된 용어

단어 형성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어근’, ‘접사’이다. 이와 더불어 ‘어기’, ‘어간’의 개념도 아울러 사용한다. ‘어간’의 경우에는 ‘활용’의 관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머지 세 용어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 a. 어근(root):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깨끗-, 소근-)

어간(stem):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부(웃-, 뛰-, 강)

어기(base): 어간, 어근을 포괄하는 언어형식.

b. 어근: 파생이나 합성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 다시 말해 활용에서 어미에 선행하는 부분.

(4a)는 이익섭(1975: 160)에서의 개념이고, (4b)는 고영근·구분관(2008)

7) 최윤지(2013)에서 기존의 시각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에서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를 실제 언어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달리 나타난다.

<표 2> ‘어근/어간/어기’의 적용⁸⁾

	남기삼·고영근(2014)	고영근·구본관(2008)	최형용(2002)
웃-	어근	×	×
웃(다)	어근/어간	어간	어간
웃(음)	어근	어근	어근/어기
짓밟(히)-	*	어근	어기
웃음(꽃)	*	어근	*
웃음(꾼)	*	어근	어기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어간/어근/어기’의 개념이 너무나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단어 형성 요소인 ‘어근’과 ‘접사’로 설명되어 있으면서 ‘접사’의 범주에 ‘굴절 접사’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굴절 접사’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굴절 접사가 결합한 용언형도 일종의 단어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또 다른 문제로 ‘파생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만들어진다면 ‘굴절접사’가 붙어서 ‘굴절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것 아닌지도 우려된다. 이처럼 문법 용어의 개념 통일이 절실하다.

3. 복합어 교육에서 인지문법적 접근의 필요성

고등학교 문법은 1985년 단일 국정 교과서로 편찬된 이래 국정 교과서로만 네 차례에 걸쳐 교과서가 편찬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다시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먼저 지금까지 편찬된 교과서에서 복합어 교

8) 황화상(2014: 107)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육과 관련된 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학교문법의 복합어 교육

3.1.1. 복합어 교육 단원의 체제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과서 편찬 체제를 통해 단어 형성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5년 학교문법 통일안에 의해 편찬된 5차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체제는 다음과 같다.

II. 단어

3. 단어의 형성

- (1) 파생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 ① 어근과 접사
 - ② 접두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③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2) 합성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 ① 합성법의 유형
 - ② 합성법의 갈래
 - ③ 합성법의 파생
- (3) 한자에 의한 단어의 형성

이것은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단어 형성법 관련 단원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단어의 형성’이라는 대단원 아래 소단원으로 ‘파생법’, ‘합성법’, ‘한자어’에 의한 단어의 형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도입부에 ‘집, 지붕, 집안’을 예로 들어 ‘집’은 하나의 형태소로 성립된 단순한 단어임에 대하여 ‘지붕’과 ‘집안’은 ‘집’이란 형태소에 다른 말이 붙어서 된 복합 구성으로 보고 복합 구성이라 하더라도 ‘지붕’은 실질 형태소 ‘집’

에 형식 형태소 ‘-을’이 붙은 것으로, ‘집안’은 두 개의 실질 형태소 ‘집’과 ‘안’이 결합되어 성격이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 단어

2. 단어의 짜임새

(2) 단어의 형성

- ① 파생어의 형성
- ② 합성어의 형성
- ③ 한자어의 형성

이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5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큰 틀에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분량면에서 간략해졌다. 하위 항목들도 비교해보면 파생어 형성 하위 항목에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로 나눈 것은 동일하나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하위에 이전 교과서에서는 ‘명사로 파생됨, 동사로 파생됨, 형용사로 파생됨, 부사로 파생됨, 접미사의 표기’로 나누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없어지고 내용이 간략해졌다. 합성어의 형성 하위에도 이전 교과서에서는 합성법의 유형, 합성법의 갈래⁹⁾, 합성어의 파생으로 나누었으나 없어졌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3. 단어’

1. 단어의 형성

1. 형태소

2. 단어의 형성

- (1). 파생어
- (2). 합성어

9) 이 항목의 하위에 다시 ‘명사로 합성됨, 동사로 합성됨, 형용사로 합성됨, 부사로 합성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문법』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하여 2002년부터 사용되었다. 이 교과서에서 복합어 관련 단원의 특징은 이전의 교과서와 달리 ‘한자어’ 단원이 빠진 것이 특징이다. 5차보다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내용이 간략해진 것처럼 7차 교육과정 역시 6차 교육과정보다 내용면에서 간략해졌다. 다음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체제이다.¹⁰⁾

2. 단어

(2) 단어의 형성

형태소와 단어

단어 형성 요소

단어의 구조와 형성

단일어

복합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어 단원의 시작은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 단위를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설정¹¹⁾하였지만 국어의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형태소’라는 단위가 필요하다. 즉, 복합어 교육을 위해서는 단어 단위보다 작은 단위인 어근이나 접사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태소’의 개념 역시 필요한 설정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 역시 이전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파생’과 ‘합성’으로 이원화된 분류에 의한 교육 내용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단어의 형성에서 합성어와 파생어로만 단어 형성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단어형성의 관점을

10) 이 교과서는 2014학년도부터 사용되고 있다.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6개 출판사(교학사, 지학사, 천재교육, 미래엔, 창비, 비상교육)에서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11) 이는 학습 내용을 축소하기 위해 ‘형태소’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본다.

넓히고 있다.

- (5) a. 칼제비(칼국수와 수제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음식), 쌈추(쌈용 배추)
b. 열공(열심히 공부함), 즐감(즐겁게 감상함)

- (6) a. 국련(국제 연합), 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
b. 컴시인(컴퓨터의 원시인), 무추(뿌리는 무이고 잎은 배추인 신품종)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파생법과 합성법에 의해 복합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술했는데 (5-6)을 보면 합성어나 파생어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이 있다. (5a)의 ‘칼제비’와 ‘쌈추’는 단어의 첫 부분과 뒤 단어의 끝 부분을 따서 결합한 단어이고 (5b)의 ‘열공’과 ‘즐감’은 두 단어의 앞 음절만 따서 이를 결합한 단어이다. (6a)의 ‘국련, 노찾사’는 긴 말에서 앞 음절을 따서 줄인 말이고 (6b)의 ‘컴시인, 무추’는 뒤 음절을 따서 줄인 말이다. 이처럼 이들이 앞에서 제시한 단어 형성 체계인 ‘합성’과 ‘파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예시에 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 있다.

- (7) 이들 축약어는 파생어보다는 합성어에 가깝다고 판단되지만 전형적인 합성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축약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7)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복합어 중 합성어나 파생어로 간주하기 어려운 예들을 ‘축약어’로, (7)의 설명을 통해 최근에 만들어지는 단어들은 ‘합성’과 ‘파생’으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단어 형성법인 ‘파생’과 ‘합성’을 벗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지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1.2. 복합어와 관련된 용어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복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a.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들을 복합어(複合語)라 한다. 복합어 가운데 ‘논밭’, ‘구름다리’처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말을 합성어(合成語)라 하고 ‘개살구’, ‘떡이다’, ‘떡구름’처럼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을 파생어(派生語)라 한다.(창비 97쪽)

b.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單一語)와 파생 접사가 결합하거나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복합어(複合語)로 나뉜다.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 파생어(派生語)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중략) 합성어(合成語)는 어근과 어근이 직접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가다’, ‘책가방’, ‘밤낮’은 합성어에 속한다.(교학사 96-97)

c. ‘하늘’, ‘마을’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며, ‘겨울비’, ‘높푸르다’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나 ‘맨발’, ‘피보’처럼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중략) ‘맨발’, ‘피보’처럼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붙어 있는 단어는 파생어이고, ‘겨울비’, ‘높푸르다’처럼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이다.(주 미래엔 96-97)

(8)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3종에 기술된 ‘복합어’의 정의이다. 3종 모두에서 보는 것처럼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 혹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합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과 ‘접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단일어 설명에도 ‘어근’이 사용되고 복합어 정의에도 동일한 어근이 사용되므로 이 개념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을 보자.

- (9) a. ‘깨끗하다’ - ‘깨끗’
- b. ‘청결하다’ - ‘청결’

(9)를 복합어 구성요소로 보면 똑같은 어근이다. 하지만 ‘깨끗’과 ‘청결’만 놓고 본다면 동일한 어근의 개념으로 지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전자인 ‘깨끗’은 어근으로 통칭하지만 ‘청결’은 명사인 ‘단어’로 지칭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근’의 개념은 또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음은 복합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과 ‘접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a.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창비)
- b.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교학사)
- c.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미래엔)

- (11) a. 단어 형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창비)
- b.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교학사)
- c.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부분(미래엔)

(10)은 ‘어근’의 정의이고 (11)은 ‘접사’의 정의이다. 두 정의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준 중 의미적 기준에 의한 정의이다. 즉, 어휘적/문법적 의미에 기준을 둔 것인데 이 기준은 주관적이라는 약점을 가질 수 있다. 위의 기준대로라면 국어 접사는 모두 주변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 특히,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더 많다.

3.2. 인지문법적 접근의 필요성

3.2.1. 단어관 변화의 필요성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는 단어에서 제외하는 견해를 채택했다. 이는 조사와 어미 둘 다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와 둘 다

를 단어로 인정하는 견해를 단순히 절충한 것일 뿐이다. 이는 문법 기술의 편의를 위해 선택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언어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변해야 하지만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법 기술에서 단어관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용법 기반(usage-based) 모형인 인지문법을 반영해야 한다. 실제 활용 사건에서 도식을 추출해내는 것으로 태어날 때 어떤 도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지문법은 아래에서 위로의 원리(bottom-up)를 추구한다. 이는 추상적인 개체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지언어학에서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관습적 언어 단위들의 구조지어진 목록(structured inventory of conventional linguistic units) (Langacker 1987: 57(김종도 2002: 27))

(12)에서 구조지어져 있다는 것은 목록 내에 계층적 질서가 있으며, 어떤 항목은 다른 항목의 구성 요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더 큰 요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종도 2002: 27).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목록 속에 질서가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현행 학교문법의 방식인 절충적 체계에 의하면 문법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문법 형태소도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 때문에 문장에 등장한다. 이런 관점은 바로 인지문법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에서 ‘새’라는 개념적 범주에 중심적 구성원들과 주변적 구성원들이 있듯이 명사라는 언어적 범주에도 대표적 구성원들이 있고 주변적 구성원들이 있다. 이처럼 ‘단어’라고 일컫는 범주에는 연속성이 존재하여 지금까지 ‘접사’나 ‘어근’, ‘단어’라고 지칭하였던 단어관이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목록에 있는 단위들 사이에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있으며 부분/전체의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단어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킴으로써 병렬과 종속을 묶어 복합문으로 보는 것처럼 어기와 접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복합어 구성요소로만 보는 관점이 가능할 것이다(최윤지 2013: 285). 이는 접사와 어기의 단어 형성 기능이나 어휘부에서의 지위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관점(채현식 2003, 송원용 2005)과도 맥을 같이한다.

- (13) a. 만이, 풋것, 짓긋다, 부질없다, 솟겹다
 b. 늦더위, 잘하다, 꽃소금
 c. 맹공격, 찬소금; 생고기, 사진사

(13a)는 ‘접사+ 접사’의 구성으로 보이는 경우로, (13b)는 논의에 따라 파생어로도 혹은 합성어로도 간주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는 예로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파생’과 ‘합성’은 앞 절에서 정의한 것처럼 간단하게 정의되는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으며 파생과 합성이 아닌 전혀 새로운 개념 구획이 가능할 수도 있다.¹²⁾ 기존 분류 체계를 가지고 실제 단어를 분류해 보면 더 더욱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4) a. 김매기
 b. 해돋이

(14)의 예는 ‘김을 매다, 해가 돋다’라는 통사적 구성이 형태적 구성인 복합어로 만들어진 예이다. 이런 유형의 단어가 현재도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파생어 혹은 합성어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¹³⁾ 특히 (14b)는 분석하기에 따라 합성어 혹은 파생어로 보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위의 견해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긴다.

- (15) a. 홑꽃잎, 첫날밤
 b. 눈엣가시, 두고두고, 잡아가다.

12) 최윤지(2013)에서도 기존의 ‘파생’과 ‘합성’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13) 고영근(2008: 203)에서도 ‘작은-집, 길-짐승, 건넌-목’은 선행 요소인 ‘작은, 길, 건넌’이 ‘동사나 형용사 어간+관형사형 어미’로서 단어보다 큰 단위이며, 따라서 이들은 직소 분석 자체가 어려우므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접사는 아니므로 굳이 구분하자면 이들 복합어는 합성어에 가깝다고 보았다.

(15a)는 ‘파생접사-어근-어근’이라는 세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형태소의 결합만 기술하는 복합어 분류 체계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15b)는 ‘-에, -고, -아’ 따위의 굴곡접사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설명 방식으로 설명이 어렵다(최규수 2007: 134).

3.2.2. ‘파생’과 ‘합성’을 넘어

기존 학교 문법의 단어관은 구성의 관점에서 형성의 관점으로 변해 왔다. 그리고 단어 형성을 규칙의 관점에서 파악해 왔으며 그 규칙을 생략적이라고 보아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어의 단어형성을 규칙으로 설명하지 않고 유추라는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채현식 2003, 송원용 2005)하거나 동기화의 관점(송현주 2015)¹⁴⁾으로 설명한다. 이는 아래에서 위로의 지향에 맞게 실례들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보는 인지문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어휘부는 유추의 기반이 되는 어휘적 관계망을 가진 능동적 저장부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또한 단어의 형성은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지 능력의 일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파생’과 ‘합성’을 넘어

	파생	합성
단어 형성의 동기	‘졸업식 때 입을 옷’을 표현할 어휘의 필요성	‘양념을 담은 병’을 표현할 어휘의 필요성
유추 기반	‘작업-복, 운동-복, 체육-복, 수영-복, ...’ → ‘X-복’	‘간장+병, 기름+병, 물+병, ...’ → ‘X-병’
적절한 어기의 선택	단어 형성 동기로부터	단어 형성 동기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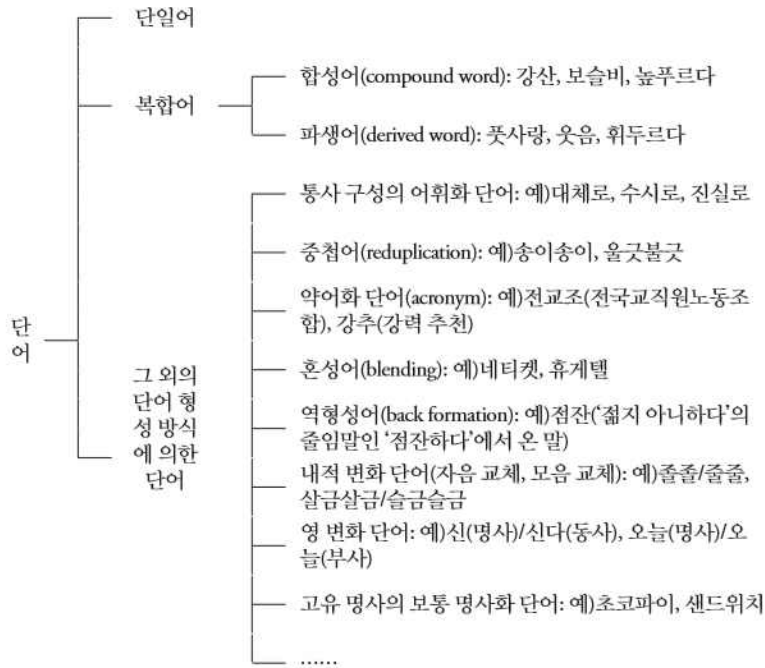
14) 송현주(2015: 47 각주1)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연필깎이’와 같은 예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에 대해 논하지 않고 복합어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견지한다. 아울러 학교문법에서도 이런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선택 → ‘졸업’	선택 → ‘양념’
유추의 결과	‘졸업복’	‘양념스병’

<표 3>에서 ‘졸업복’은 파생어, ‘양념병’은 합성어라고 보는데 단어 형성 기제에 있어서 이 둘은 아무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단어 형성법은 기존의 단어 구조 분석의 결과에 따른 ‘합성’과 ‘파생’을 별 비판 없이 받아들여 온 듯하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합성과 파생이라는 이분법적 체계로 학교 문법에서 기술되었다. 이분법적 체계에 대한 비판은 여러 곳에서 있어왔음¹⁵⁾에도 아직까지 학교 문법 교육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분법적 체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단어가 존재한다.

(16) 단어의 분류(구분관 외 2015: 115)

15)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단일어가 아닌 단어들을 모두 합성어나 파생어에 소속시키려고 하였지만, 실제로 단어들을 살펴보면 짜임새가 단일하지 않은 단어 중에는 합성어와 파생어로만 나눌 수 없는 예들도 무수히 발견된다(구분관 외 2015: 115).



(16)은 확장형 단어분류인데 기존의 ‘파생’과 ‘합성’ 이외에도 단어 형성 방식은 다양하다. 복합어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을 위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이 제시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다. 줄일 경우 ‘중첩어’, ‘약어화 단어’, ‘혼성어’ 등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요소끼리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합성어에 속한다. 그리고 ‘통사 구성의 어휘화 단어’는 조사나 어미가, ‘내적 변화 단어’는 자음이나 모음이 바뀌는 사실 자체가, ‘영 변화 단어’는 흔히 ‘∅’로 표시되는 영 형태소가 파생 접사처럼 단어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생어에 넣기도 한다. ‘역형성어’나 ‘고유 명사의 보통 명사화 단어’는 합성어나 파생어 어디에도 넣기가 곤란하다(구분관 외 2015: 116-117).

- (17)¹⁶⁾ a. 있다가, 갈수록, 되도록, 마음대로, 이나마
 b. 틀림없-, 다름없-, 빠짐없-

c.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고양이를 부탁해

(17ab)는 통사적 구성이 그대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예이고, (17c)는 통사 구성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고유명사이다. 기존의 2분법적 체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단어에 대해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단어형성법에 관한 체계가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한 논의의 출발은 김창섭(1996: 25)의 ‘어휘화’와 ‘단어화’의 개념을 참조할 수 있다.

(18) a. 어휘화: 언어체계상의 어떤 변화 때문에 어떤 어휘소가 생산적 규칙의 적용으로 생겼다면 가질 수 없었을 형식이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b. 단어화: 접사가 단어가 된다는가, 구가 단어가 된다는가, 활용형으로서의 구가 단어가 된다는가, 접사가 아닌 단어의 일부가 단어로 독립하는 것과 같이, 단어 아닌 것이 단어로 재분석되는 계층구조상의 변화로서, 공식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통시적인 과정일 수도 있다.

이분법적 단어 형성 체계의 대안으로 박진호(1994: 10)에서는 기존의 합성과 파생에 ‘어휘화’라는 과정을 단어 형성 체계 안에 설정하고 있고 송원용(1998: 22-31)에서는 단어형성전용요소에 의한 단어형성(의사 파생)이라는 과정을 추가하여 4분법적 단어 형성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 체계에서 ‘단어 형성’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19) a. 핵심 개념: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음운, 단어, 문장, 담화)

b. 일반화된 지식: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c. 학년군별 내용 요소-5-6학년군 성취기준: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탐구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에 적용한다.

(19)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서에서는 지금까지 교

16) 송원용(2005: 67) (19)번 예문 재인용

과서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과생’과 ‘합성’의 경계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의 예에서처럼 실례에서 도식을 찾아내어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20) 날도독질, 막일꾼

(20)은 [접두사+ 어근+ 접미사]라는 단어의 도식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 스스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실시하는 단어 형성 교육은 규칙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 지향 교육이지만 인지문법에서 지향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의 교육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성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 (21) a. 굳은살, 깊은숨; 건널목, 탈것
 b. 받들어충, 놀자판
 c. 야타족[[야+ 타--+ -아]+ [족]]
 d. [[일+ 하--+ -기+ 싫--+ -어]+ [병]]

(21a)와 같은 동사의 관형사형(-(으)ㄴ, -(으)ㄷ)이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나 (21b)와 같은 ‘동사의 종결형+ 명사’ 구조, (19c)처럼 ‘감탄사’가 들어 있는 구조나 더욱 복잡한 구조(21d) 등 다양한 복합어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다.¹⁷⁾

4. 마무리

이 연구는 학교문법의 복합어 교육 단원의 구성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인지문법의 연구 내용을 학교문법 교육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

17) 이 논의는 복합어 교육에서 인지문법적 접근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므로 본격적인 복합어 교육에 대한 대안은 후고로 미룬다.

을 두었다. 실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단어를 살펴보면 학교문법의 단어 형성 교육과는 거리가 먼 단어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문법 교육에 인지문법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어 단어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전통문법, 구조주의, 변형생성문법의 세 흐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확립된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는 단어에서 제외하는 절충식 체계를 채택했다. 조사와 어미 둘 다를 단어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둘 다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절충한 것일 뿐이다. 이는 문법 기술의 편의를 위해 선택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언어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어관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활용에 기초를 둔(usage-based) 모형인 인지문법을 반영해야 한다. 인지문법은 아래에서 위로의 원리(bottom-up)를 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단어를 ‘관습적 언어 단위들의 구조 지어진 목록(structured inventory of conventional linguistic units)’으로 본다. 이 단어관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학교문법에서 복합어를 보는 관점이 ‘합성’과 ‘파생’으로 이원화되던 것을 넘어서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까지 도입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존 학교 문법의 단어관은 구성의 관점에서 형성의 관점으로 변해 왔다. 단어 형성의 관점 또한 규칙의 관점에서 파악해 왔는데 최근 들어 국어의 단어형성을 규칙으로 설명하지 않고 유추라는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지문법적 관점이 국어 문법 교육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ognitive Grammar Approaches in the Complex Word Education

Kim, Eok J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position system and contents of complex word education chapters in school grammar and propos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ognitive grammar contents to the school grammar education. When examined words created in our daily lives, this study discovered that many of them are far from the word-formation education of school grammar. Thus,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ognitive grammar perspectives to the school grammar education.

All the studies on Korean words can be mostly divided into three flows, traditional grammar, structuralism and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Having been established with such flows, the Korean school grammar accepts an eclectic system that includes particles in words, but excludes endings from words. In other words,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both particles and endings should be recognized as words, and other opinions that neither of them should be excluded from words, so this system makes a compromise between them and is selected for the sake of grammar description. From this perspective, a new linguistic research flow should be reflected, but the concept of words has not changed at 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cognitive grammar, a usage-based model.

Cognitive grammar pursues bottom-up principles. In this aspect, words are regarded as structured inventory of conventional linguistic units. With such a concept of words adopted, this study insists that it is needed to introduce even 'Wordization of Syntactic Construction', beyond the present school grammar that has dual perspectives on compound words as 'Compound' and 'Derivation'. The present school grammar concept of words has changed from a perspective of composition to a perspective of formation. Even the perspective of word formation has been comprehended from a perspective of rule. Recently, however, Korean word formation is explained not with rules but as a cognitive

process called 'Inference'. Therefore, this study found it necessary to introduce cognitive grammar perspectives to the present Korean grammar education.

Key Words: Words, Word formation, Complex word, School grammar, Cognitive grammar, Compound, Derivation, Wordization of syntactic construction

참고문헌

□ 단행본

- 김광혜, 『국어 어휘론』, 집문당, 2000, 232-245면.
 구분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2015, 115면.
 구분관·고영근,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199-250면.
 김민수, 『신국어학사』, 일조각, 1964, 264-272면.
 김종도 역, 『인지문법의 디딤돌』, 도서출판 박이정, 2002, 1-140면.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1996, 9-209면.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제4판), 도서출판 박이정, 1985/2014, 187-221면.
 손영숙·정주리 역, 『구문문법』, 한국문화사, 2004, 19-54면.
 송원용,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2005, 11-283면.
 송현주, 『국어 동기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15, 47-68면.
 시정곤, 『수정관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1994, 15-64면.
 이광정, 『국어문법연구 1』, 도서출판 역락, 2003, 115-324면.
 이승녕, 『국어조어연구』, 을유문화사, 1961, 1-462면.
 주시경, 『주시경, 국어문법』(고영근·이현희 교주), 탑출판사, 1910/1986, 50-78면.
 채현식,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2003, 11-233면.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1971, 657-732면.
 Cruse, D, A,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임지룡·윤희수 옮김,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1989, 1-291면.)
 Lee, David,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입문』, 한국문화사, 2003, 113-154면.)
 Taylor, John 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1995(조명원·나익주 옮김,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1997, 354-373면.)
 Taylor, John R.,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문법』, 한국문화사, 2005, 354-371면.)

□ 논문

- 고영근,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우리말연구』 15, 우리말학회, 2004, 23-51면.

- 구본관, 「2015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51, 국어교육학회, 2016, 90-133면.
- 김광해, 「복합명사의 신생과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국어국문학회, 1982, 5-29면.
- 김억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 구현 양상-8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14(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25-52면.
- 김억조, 「대립어의 다의적 양상과 의미 척도 체계 연구」, 『국제언어문학』 26, 국제언어문학회, 2012, 81-101면.
- 김억조,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 차이 교육의 필요성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7(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23-44면.
- 김억조, 「어휘 외적 대립어 설정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제언어문학』 30, 국제언어문학회, 2014, 187-205면.
- 김종도, 「인지문법의 국어에의 적용」, 『한국어학』 5, 한국어학회, 1997, 1-44면.
- 박진호,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07면.
- 송철의, 「파생어 형성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1-110면.
- 오규환, 「단어 형성 과정의로서의 어휘화」, 『국어학』 68, 국어학회, 2013, 323-366면.
- 오민석, 「문장형 단어형성요소의 형성과 특성」,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239-264면.
- 이익섭, 「국어 복합 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1965, 121-129면.
- 이익섭,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5, 155-165면.
- 최규수, 「복합어의 어기와 조어법 체계에 대하여」, 『한글』 277, 한글학회, 2007, 133-158면.
- 최윤지, 「파생과 합성, 다시 생각하기」, 『국어학』 66, 국어학회, 2013, 265-306면.
- 최형용, 「국어의 단어 구조에 대하여」, 『형태론』 1권 2호, 형태론학회, 1999, 245-260면.
- 최형용,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2, 형태론학회, 2002, 301-318면.
- 하치근, 「국어 조어론 연구의 어제·오늘」,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2006, 3-47면.
- 황화상, 「형태 단위와 그 범주 설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회, 2014, 85-110면.

□ 교과서

- 문교부(1985), *고등학교 문법*,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44-60면.
교육부(1996), *고등학교 문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54-66면.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82-89면.
이도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2014, 94-103면.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교학사, 2014, 94-99면.
윤여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미리엔, 2014, 94-101면.

이 논문은 2016년 11월 4일 접수되어 11월 25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

